

농식품부 장관, 햇사과 생육 및 출하 동향 점검

- 사과 주산지 경북 영주의 농가 찾아 생육 현장 점검하고 농업인 격려
- 영주시 과수 거점 APC 햇사과 선별·출하 현장 시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30일(목),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여 햇사과의 생육 상황과 출하 현장을 점검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조생종인 청사과(쓰가루)의 수확 상황과 가을에 본격 출하되는 홍로·후지 등 주요 사과 품종의 생육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올해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운영 중인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생육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방정부와 농협, 농진청에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과의 햇별데임(일소), 열매터짐(열과)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 주산지 지방정부·농진청·농협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도 지속 추진 중(4월~)

이어, 영주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햇사과가 선별되고 출하되는 과정을 직접 시찰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사과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관리 덕분에 올해 사과 생육 상태가 좋아 다행스럽다”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장바구니 물가로 걱정하지 않도록 햇사과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우리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조강흠	(044-201-2260)
			주무관	윤근영	(044-201-2262)